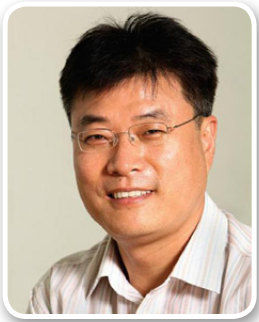


쫄쫄한 경영이 필요하다



박봉식
건설경제신문 산업1부장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유대민족과 필리스티아인민족은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지루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쉐펠라 지역에서 일전을 겨루게 된다. 필리스티아인 왕은 2m가 넘는 거인인 최고의 전사를 보내 일대일 결투를 청한다. 유대군은 기에 질려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이때 어린 양치기 소년이 자원했다. 왕이 준 갑옷도 마다한 채 조약돌 몇 개를 주워들고 거인 앞으로 나갔다. 소년은 돌을 물매를 끼워 돌리다 거인 눈 사이 급소에 날렸다. 거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유대군은 승리했다.

성경에 나오는 거인 골리앗과 양치기 소년 다윗의 얘기가. 해석은 다양하다. 고릿적 얘기로 듣고 흘리는 사람도 있고 영웅담으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다. 성경에 실려 있는 만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종교적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약자도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데도 인용된다. 그러나 2000년대 가장 유명한 경영사상가의 한 명으로 꼽히는 말콤 글래드웰(Malcolm Gladwell)은 이 얘기 속에는 숨겨진 착각이 있다고 분석한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다윗이 결코 약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대에는 창이나 칼 가진 보병, 활을 든 궁병 외에 '물매병'이 있었다. 물매는 애들이 가지고 노는 새총 수준이 아니다. 6~7번 물매를 돌리다 돌을 발사하면 초속 35m가 나오는 위협적인 무기다. 야구선수가 던지는 공보다 빠르는데다 정확도도 높았다. 게다가 쉐펠라 골짜기의 돌은 일반 돌보다 밀도가 두 배 정도 높아 파괴력이 높았다고 한다. 반면 골리앗은 중무장한 상태인데다 말단비대증을 앓는 환자로 추정된다. 다윗의 승리는 신의 도움이나 우연한 행운이 아닌 제대로 준비된 승리라는 것이 말콤 글래드웰의 분석이다. 그는 현상의 실제 이면을 보는 힘, 즉 통찰력이 있어야 칼과 창은 없지만, 현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경제전쟁에서 중요한 통찰력 가운데 하나는 흐름을 아는 것이다. 흐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상품, 유행, 사회적 인식 등의 트렌드도 놓칠 수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경기 흐름 만큼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없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해 낙오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 건설시장의 경우 아파트 경기가 끝나가는데 막차를 타거나 혹은 나 하고 내리지 못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업들이 그 예이다. 시쳇말로 한방에 훅 간 것이다. 통찰력은 단순히 흐름만을 파악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다. 실제 나타나는 현상 뒤에 있는 물줄기를 보는 능력이다. 그 물줄기는 간헐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경을 지배하는 핵심 인자가 된다. 지표나 수치, 이론으로만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요즘 기계설비건설인들은 혼란스럽다. 곤두박질치던 건설경기 곡선이 고개를 들고는 있지만, 왠지 불안한 느낌을 감출 수 없다. 과거 경기는 사이클이 있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등으로 고점이, 저점이 반복됐다. 바닥을 치고 올라온 지금쯤이면 상승기류를 타고 날개를 펴는 시점이다. 가만히 있어도 바람에 떠밀려 솟아오르는 때인 셈이다. 실제로 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건설수주는 올 들어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연구기관들도 수주전망을 수정, 애초보다 5% 포인트 높은 두 자릿수 증가를 점치고 있다. 애초보다 기대치가 높아지면 기쁨도 더 커지는 법이다. 그럼에도, 마뜩찮은 것은 정부의 인위적 부양책에 힘입은 주택 편향적 회복세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은 해가 지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햇살이 강하게 비쳐 하늘이 잠시 밝아지는 회광반조(回光返照)현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은 현상의 이면을 봐야 할 때이다. 도도한 물줄기 말이다. 생명체든 구조물이든 수명주기가 있다. 산업도 마찬가지다. 주기별 특성이 있게 마련이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된다. 수명주기 이론을 통해 볼 때 건설은 성장기를 지나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성숙기는 일반적으로 완속과 안정적인 이미지를 가진다. 하지만, 수명주기 이론에서는 판이하다. 시장이 정체되고 제품 혁신 속도가 둔화하는 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시기다. 산업에는 시련기일 뿐이다. 건설의 성숙기는 시나브로 다가왔지만, 충격은 급격하고 강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장 축소, 경쟁 심화, 수익성 악화의 삼각과도가 한꺼번에 몰아친 것이다.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건설은 과거 성장기와 같은 호황을 기대하기 어렵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산업이 구조적으로 바뀐 것이다. 선진국은 처절한 경험을 했다. 미국의 경우 내수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수평 내지 완만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20년 동안 성장하지 않은 것이다. 미국 건설기업들에는 고통의 시기였다.

그럼에도, 그들은 살아남았다. 철저한 사업관리 덕분이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 원가와 리스크 등 경영요소들을 쫄쫄하게 관리한 것이다. 쫄쫄하다는 말이 요즘은 '인색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원래는 '천의 짜임새가 고르고 고운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다. '아주 작은 일까지도 세세히 신경 써서 손해가 안 되도록 빈틈없고 아무지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기계설비건설기업은 쫄쫄한 경영이 필요한 때다. 